

# 코비드와 더불어 사는 삶과 사역들

최남용 / 최형미



지난 **2021** 년은 코로나의 여파로 미국이나 선교지나 모두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코로나의 창궐 속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였던 아피틀란 호숫가 산띠아고 마을의 **DIEGO** 목사님이 코비드에 감염 되신지 한달만인 지난 **5** 월 **6** 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또한 최형미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MK** 학교 **CHRISTIAN ACADEMY OF GUATEMALA (CAG)** 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에 감염되 힘들어했고 그 와중에 몇몇 교사와 학생들이 암과 또 다른 질병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미국 **MARYLAND** 출신으로 코로나 사태 바로 전에 과테말라를 방문해 **1** 년 **CAG** 교사로 섬기면서 바로 이 사역이, 즉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본인의 남은 삶의 평생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과테말라로 이주해 **CAG TEACHING** 사역을 막 시작하려했던 **KATHY PURVES** 선교사가 새 학년을 맞아 가르치기 시작한지 불과 **2** 주일만에 자궁암이 발견되 급히 수술을 받았고 수술받은지 약 **2** 달만에 고향 **MARYLAND** 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CAG COMMUNITY** 와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 또 학생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리고 **KATHY** 선교사가 세상을 떠난지 불과 **2** 주 후 **CAG** 공동체가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 왔던 **DANIEL PEREZ**, 약 **3** 년 전 **CAG** 를 졸업하고 대학입학을 준비하던 **21** 살의 **DANIEL**, 우리

한솔이 한얼이와 함께 공부했었던 **DANIEL** 역시 3년 동안의 전립선 암과 투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를 간병하던 모든 식구들이 코비드에 감염돼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또한 최남용 선교사 개인적으로는 캐나다에 사시던 큰 누님, 토론토 영락교회를 섬기시던 최은영 권사가 2020년 여름에 발견된 암과 1년 동안 투병하다가 작년 여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 최남용 선교사가 급히 장례식에 참석코자 했으나 캐나다 정부의 엄격한 코비드 상황에 따른 입국제한으로 아주 어렵게 서류통과를 받아 극적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의 상황들과 장소들, 또한 부르심을 받았을때의 연령들은 다 달랐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고후 5장 1절) 죽음 너머 하늘 본향이 있음을,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굳게 믿는 산 소망을 심장의 고동소리가 멈추는 마지막까지 소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저희와 지난 8년 동안 함께 동역해 오던, 그리고 최근 코비드 감염으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된 **CARLOS MURCIA** 목사님과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남용 선교사 역시 작년 눈수술과 심장상태의 악화로 여러 달 텍사스 동부 타일러 소재 **YWAM** 선교관에서 재활 및 요양생활을 마치고 과테말라로 귀국, 조금 더 요양생활을 해야 한다는 심장외과의 권면에 따라 아띠플란 호숫가의 선교관에서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캐나다에 사시는 큰 누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극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후, 과테말라 **MK** 학교를 졸업한 둘째 한얼이가 앞으로 4년 공부하게 된 시카고 **WHEATON** 대학 까지 데려다 주고 과테말라 선교지로 귀임한 후 오랜만에 카를로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마을에 위치한 **IGLESIA RESTAURACION** (회복 교회) 의 담임이신 **CARLOS** 목사님과 둘째딸 **KARIN** 은 사실 두어 달 전 코로나에 감염돼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오래 만에 만나게 된 **CARLOS** 목사님은 몇달 사이에 몇년은 더 늙어지신 모습이셨고 흰머리카락도 많이 생기셨으며 또 무척 수척해진 모습이었는데, 산소통을 메고 침대에서 사경을 헤메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CARIN** 자매도 세째 아이를 임신 중에 **COVID** 에 감염되 많이 염려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우리는 산모의 요청대로(^^) 맥도날드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한 후, **IGLESIA RESTAURACION** 교회 교인들을 위한 생필품을 구입하러 도매시장을 찾았고 감사하게도 생필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 회복된 동역자 카를로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카를로스 목사님이 섬기시는 쓰레기 매립장 마을 LA IGLESIA RESTAURACION (회복의 교회)의 필요들을 들으며, 성령님께서 이번엔 저희의 필요들을 나누기 보다는 동역자 카를로스 목사님의 사역과 삶의 간증, 그리고 그의 필요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해서 간단하나마 카를로스 목사님과 YOLANDA 사모님의 삶과 간증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까를로스(Carlos) 목사님과 올리 (Yolanda) 사모님은 1961년 동갑으로서 과테말라 시 zone 7에서 어린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이자 sweetheart로서 두 사람이 20살이 되던 1981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신 후, 딸 셋을 낳아 키우게 됩니다. 아직 신앙이 없던 젊은 청년 까를로스는 트럭 운전사로 일을 하며 세 딸들을 키우게 되는데, 큰 딸 리셋이 집 근처에 개척된 오순절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를 전도하기 시작해, 결국 엄마 올리 사모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리셋은 할아버지까지 전도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지만, 까를로스는 교회 출석하기를 거부했고, 어린딸과 아내의 오랜 기도 끝에 결국 50세가 되던 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트럭 운전사로 운전하던 중, 하이웨이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구사일생 살아남았는데 그때 어린 딸과 아내의 기도하던 모습이 떠오르는 체험을 한 후, 50세가 될 때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자아와 고집 그리고 죄를 짓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아버님이 이미 출석하시며 집사로 섬기시던 Iglesia Jesus el camino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집사로서, 또 평신도 사역자로 신실하게 사역하던 도중, 당시 쓰레기 매립장 마을 선교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담임목사 Saul Perez 목사님의 권유로 그곳 미션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 미션이 교회로 성장했고 (Iglesia Bautista la restauracion 회복 침례 교회) 그는 그곳을 섬기는 전도사로 그리고 마침내 담임목사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최남용 선교사의 신학교 제자였던 Saul 목사님의 소개로 2013년 까를로스 목사가 섬기던 쓰레기 매립장 마을의 미션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미션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알루미늄 널판지로 2미터 x 3미터 공간에, 아직 바닥엔 시멘트도 깔지 않은 흙 바닥이었고 아직 어설픈 기 그지없는 사역이었지만, 까를로스 목사님과 올리 사모님, 그리고 둘째 딸 Carin 이 쓰레기 매립장 마을 사람들을 부지런히 심방하고, 매 주 금요일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섬기고 전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과테말라 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가난한 이들을, 사회에서 소외되고 마약과 알콜에 찌들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인 Iglesia de la Restauracion 가 들어서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 이름 La restauracion 이 "회복"이란 뜻을 가졌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인 La restauracion 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한 여러 가정들이 자신들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까를로스 목사님 내외분은 그곳으로 돌아간 교인들을 돌보다 그곳 Escuintla 이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비드 사태 이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게 된 까를로스 목사님 내외는 수입이 끊겨지고 먹을 음식이 없어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된 이 지역사람들을 돌봐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저희 역시, 특별히 매주 주말 이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멘토링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비드로 봉쇄되어 이 마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가장 절실한 필요 인 생필품은 매달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까를로스 목사님께 기도제목을 여쭙보았더니 다음의 네가지 기도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이 쓰레기 마을의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부모 또는 조부모들이 술과 마약에 찌든 생활을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 그들 역시 술과 마약에 중독되고 또한 갱단에 들어가게 되는 악순환 가운데 사는 청소년들이 복음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두번째로는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세번째로는 이 마을을 떠나 과테말라시티에서 한 시간 떨어진 저지대 Escuintla 에 새로 개척한 지교회를 돌보려 매 주 한번씩 심방해 그곳에서 2-3 일 씩 교회 바닥에서 잠을 자며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그곳에 목사님 부부가 묵을 수 있는 조그만 숙소를 짓고자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후반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사역에 헌신한 후 죽기까지 충성하는 귀한 사역자 까를로스 목사님과 올리 사모님, 그리고 까린을 동역자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헌신과 사역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해 잃은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저들을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코비드로 힘들어하는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제목

1. 열악한 환경가운데서도 주의 일에 힘쓰는 과테말라 현지 동역자들과 동역할 때 겸손함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2. 아직도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최남용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SETECA 신학교와

또 최형미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Christian Academy of Guatemala 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3. 시카고 Wheaton college 에서 새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둘째 한얼이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4. 수술 후 회복중인 최남용 선교사의 건강을 위하여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